

청소년기, 성년기, 중년기의 배려지향적 도덕성에 관한 연구

정 옥 분¹⁾

곽 경 화²⁾

고려대학교 가정교육학과

미국 텍사스주립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30대 성인, 50대 성인 남녀 240명을 대상으로 성과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청소년기, 성년기, 중년기의 배려지향적 도덕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배려지향적 도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Skoe(1987)가 제작한 「배려의 윤리 면접검사(ECI: Ethic of Care Interview)」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자들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성역할 정체감은 정진경(1990)의 「한국 성역할 검사(KSRI: Korean Sex Role Inventory)」를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 및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중앙치 반분법, Conhen's Kappa, Cronbach's α , 이원변량분석, 그리고 Scheffé 중다비교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청소년의 배려지향적 도덕성은 제 1.5수준, 제 2수준, 제 1수준, 제 2.5수준 순이었고, 30대 성인의 경우는 제 2수준, 제 1.5수준, 제 2.5수준, 제 1수준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50대 성인들에서는 제 2수준, 제 1.5수준, 제 1수준 순이었다. 성과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청소년의 배려지향적 도덕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성과 성역할 정체감에 의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30대 성인에서는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50대 성인의 경우는 성과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주요어: 배려지향적 도덕성, 성역할 정체감, 청소년기, 성년기, 중년기

* 본 연구는 2000년도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의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된 연구의 일부임.

1) 교신저자: 정옥분, 고려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교수, E-mail: obchung@korea.ac.kr

2) 미국 텍사스주립대학교 박사과정

I. 서 론

도덕성 발달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이론적 틀로서 인정되어 온 Kohlberg(1976, 1984)의 도덕성 발달이론에 의하면, 도덕성 발달은 모든 문화권에서 보편적인 순서로 6단계의 발달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단계는 구조화된 사고의 체계를 의미한다고 한다. 즉, 도덕성은 논리적 사고과정으로서 갈등에 대한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함으로써 발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Gilligan(1977)은 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이론은 여성에 대한 편견을 나타내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Kohlberg의 이론은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기초로 해서 도덕성 발달수준을 6단계로 나누고, 대부분의 남성은 4단계 수준에,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은 3단계 수준에 머문다고 주장한 바 있다. Gilligan(1977, 1982, 1993)에 의하면 남자는 독립적이고, 단호하며, 성취지향적으로 사회화되므로 도덕적 갈등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권리 및 법과 사회적 관습을 중시하게 된다. 이것은 Kohlberg의 도덕성 발달 4단계에 반영되는 견해이다. 반면, 여자는 양육적이고, 동정적이며, 다른 사람의 욕구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는 사회화로 인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도덕적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주로 Kohlberg의 도덕성 발달 3단계에 반영되는 견해이다. 결과적으로 남성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법과 질서를 우선하는 정의의 도덕성(morality of justice)을 지향하게 되고, 여성은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과 복지가 핵심인 보살핌의 도덕성(morality of care)을 지향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남성중심적인 도덕성 발달이론을 대신하여, Gilligan은 여성의 도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으로 배려지향적 도덕성을 제시하였다. 배려지향적 도덕성이란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관점으로 협조 및 봉사, 책임, 복지, 배려 등을 강조한다. Gilligan(1982)은 여성의 도덕성 발달을 세 수준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매 수준마다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 사이에서 갈등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그리고 한 수준에서 다음 수준으로 옮겨가는 사이에는 과도기가 있다.

타인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 책임으로 대변되는 배려의 윤리는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부조리 현상, 즉 지나친 경쟁의식이나 개인소외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배려의 윤리는 개인주의로 인한 개인간의 단절이나 고립, 상호존중의 부재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정받고 있다(박병춘, 1999; 이미식, 2000). 더군다나 우리 사회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활하며, 공동체 생활에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중시한다. 특히, 우리 사회 전반에 잠재하고 있는 유교적 가치관은 자아와 타인간의 균형을 강조하는 배려의 윤리를 잘 반영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공동체를 구성하여 공동생활을 영위해 왔다. 우리 조상은 가족이라는 핏줄과 마을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생활 공동체를 구성하고, 서로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며 살아왔다. 전통 사회의 지역 공동체는 생활공동체이면서 윤리공동체로서 성원들에게 규범이나 도덕을 전수하는 동시에, 행위를 규제하는 사회 규범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왔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 과학 기술의 발전, 무분별한 서구적 가치관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물질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런 서구적 가치관은 전통적 가치관이나 윤리관과는 상이하다. 전통적 가치관은 의리 및 애정, 양보, 협동, 희생 등의 덕목을 중시하나 서구적 가치관은 실리 및 자유, 경쟁, 개성, 독립심 등의 가치관을 중시한다

(이광규, 1975). 그동안 우리는 배려의 윤리에서 강조하는 인간의 감정이나 동정심,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책임과 의무 등의 전통적 가치관보다는 개인의 자율이나 정의에 기초한 권리와 독립심 등의 서구적 가치관을 중시하였다(박병춘, 1995).

이렇게 촉발된 전통적 가치관과 서구적 가치관과의 마찰은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이기주의가 심화되고, 범죄 및 폭력이 난무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심각한 부작용 현상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전통적 가치관과 개인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서구적 가치관을 융화하는 과정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21세기를 지배할 새로운 윤리는 개인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은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의 복지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박윤명, 1997). 더군다나 타인에 대한 애정이나 보살핌, 책임감 등을 중시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도덕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배려의 윤리는 전통적 가치관과 서구적 가치관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배려의 윤리와 새로운 유교적 가치관을 서로 통합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합한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그 동안 발달심리학 분야에서 가장 열띤 쟁점 중의 하나는 도덕성발달에 관한 남녀의 성차였다(Gilligan, 1982; Walker, 1984; Wark & Krebs, 1996). 이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이 도덕성발달에 관한 성차를 연구하였으나, 어떠한 일치된 결과를 보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몇몇 연구들(Gilligan & Attanucci, 1988; Lyons, 1983; Pratt, Golding, Hunter, & Sampson, 1988)은 도덕적 추론

에 있어서 남녀의 성차를 입증한 반면, 또 다른 연구들(Ford & Lowery, 1986; Friedman, Robinson, & Friedman, 1987; Walker, 1989)은 남녀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기존 연구들을 검토한 Walker(1984)는 도덕적 판단능력에서 남녀간의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따라서 Kohlberg의 이론과 측정방법이 여성에게 편파적이라는 주장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하였다. 반면, 도덕적 지향성의 남녀의 차이에 대하여 연구한 Gilligan과 Attanucci(1988)는 남녀 모두 정의 지향성과 배려 지향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남성은 정의 지향적 갈등을, 여성은 배려지향적 갈등을 보다 많이 언급한다고 보고하여 도덕 지향성에 있어 남녀 성차를 입증하였다.

최근에는 성별에 따라 도덕성 발달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보다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라 도덕성 발달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를 들어, 배려지향적 도덕성과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Söchtling, Skoe 그리고 Marcia(1994)는 성별보다는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배려지향적 도덕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즉,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성별에 관계없이 여성적 성역할 정체감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배려지향적 도덕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Gilligan의 이론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가하였으나, 지금까지는 배려지향적 도덕성에 대하여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 배려의 윤리에 대해 이론적 고찰을 하거나(김지은, 1996; 박병춘, 1995; 허정희, 1996), 성별에 따른 도덕적 지향성의 차이를 보고한 연구(이나현, 1997)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와 성년기, 중년기에 해당하는 고등학생, 30대 성인, 50대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¹⁾ 배려지향적 도덕성이 성과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해 보

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배려지향적 도덕성을 보다 체계적이고 깊이있게 이해하고, 도덕성 발달상에 성차가 있는지 아니면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1. 배려지향적 도덕성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배려지향적 도덕성은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배려지향적 도덕성은 성과 성역할 정체감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30대 성인, 50대 성인 남녀 240명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기, 성년기, 중년기의 배려지향적 도덕성을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표집 방법은 개인적인 사항들을 심도있게 질문하고 개별면접을 실시해야 하는 관계로, 선·후배와 친지들을 통하여 아는 사람들을 소개받는 방법을 주로 이용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277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고 면접을 시도하였으나, 이 중에서 263명만의 질문지를 회수하고 면접 내용을 녹음하였다. 그러나

수집된 자료 중에서 녹음 상태에 문제가 있거나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미완성인 23명분의 자료는 제외하고, 나머지 총 240명의 자료를 실제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 중에서 청소년(고등학생)은 92명(38.3%)이고, 30대 성인은 88명(36.7%)이며, 50대 성인은 60명(25.0%)이었다. 그리고 남성은 115명(47.9%)이고, 여성은 125명(52.1%)이었다.

측정도구

배려지향적 도덕성

배려지향 도덕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Gilligan의 이론을 근거로 Skoe(1987)가 제작한 「배려의 윤리 면접검사(ECI : Ethic of Care Interview)」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자들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제작하였다.

우선, 「성인용 배려지향의 윤리 면접검사」의 제작을 위하여, 30대와 50대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면접과 토론은 본 연구자들이 번역한 ECI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갈등상황과 Skoe(1987)가 제시한 갈등상황에 관한 의견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각각의 가상적 갈등상황에 대한 소감과 주변에서 비슷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성인들이 실제로 경험한 도덕적 갈등상황은 매우 폭넓은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갈등관계란 이성문제, 특히 이성과의 성관계로 인한 갈등, 결혼문제와 관련된 갈등, 고부간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직장상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군복무 시절 경험한 갈등, 형제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친구간에 일어나는 갈등 등을 포함한다. 또한 Skoe(1987)가 제시한 가상적 갈등상황에 관한 의견들을 참고하여 ① 혼외 임신에 따른 임신중절의 문제와 ②

1 본연구를 시작할 당시의 의도는 아동기부터 노년기까지의 전생애를 포함한 발달적 변화를 규명해보는데 있었으나, 본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들이 아동과 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어 아동기와 노년기는 제외되었다.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결혼생활과 이혼의 문제에 관한 가상적인 갈등상황은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고, ③ 부모부양에 관한 효의 문제에서는 부모님과의 갈등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여성의 입장에서는 시부모님과의 갈등을 내용으로 하는 갈등상황이 제작되었고, 남성의 입장에서는 부모님과 부인간의 갈등을 내용으로 하는 갈등상황이 제작되었다.

「청소년용 배려의 윤리 면접검사」의 제작을 위하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면접과 토론을 통해 청소년들이 직접 경험한 도덕적 갈등 상황을 살펴보니, 개인마다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는, 학교성적으로 인한 갈등문제, 싸움과 구타의 문제, 웃어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문제, 타인의 지갑을 주웠을 때 일어나는 갈등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부모님, 교사 등)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갈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이성교제에 대한 갈등, 이성친구와 동성친구와의 삼각관계로 인한 갈등, 부모님이나 교사와의 갈등, 친구들과의 갈등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중에서 자신의 입장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책임감을 반영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다음과 같이 새롭게 구성하였다. 가상적 갈등상황은 ① 이성친구와의 성관계로 인한 임신중절의 문제, ② 이성친구와의 사랑과 동성친구와의 우정 간의 문제, ③ 가족간의 갈등으로 인한 문제들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ECI는 반구조화된 면접 형식으로, 먼저 실생활에서 경험한 갈등이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를 질문하였다. 그리고 나서 가상적 갈등상황들을 제시한 후 어떻게 행동할 것이며, 왜 그렇게 할 것인지를 질문하였다. 여기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보다는 ‘왜 그러한 반응을 보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

하다고 보았다. 이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상호의존성이나 인간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갈등상황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법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배려지향적 도덕성은 자기 중심적인 낮은 단계(제 1수준)에서 타인 중심적인 단계(제 2수준)를 거쳐,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균형을 이루는 높은 단계(제 3 수준)로 발달한다. 이때, 제 1수준과 제 2수준 사이에는 제 1.5수준이, 제 2수준과 제 3수준 사이에는 제 2.5수준의 과도기가 존재한다. 제 1수준에서는 스스로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수준이다. 제 1.5수준은 자기 자신만의 행복에서 책임감을 중시하는 과도기적 수준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애착이 서서히 나타나는 수준이다. 이는 이기심과 책임감이 공존하는 단계이다. 제 2수준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수준으로, 타인에 대한 책임감이 강조된다. 제 2.5수준은 타인만을 위한 배려와 희생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진실성을 자각하는 과도기적 수준이다. 제 3수준에서는 자신과 타인과의 상호연계성을 통하여 이기심과 책임감 사이에 역동적 관계가 형성된다는 데에 초점을 둔다.

Skoe(1987)가 각 수준별 특성과 사례들을 보고한 「배려의 윤리 면접 분석방법」에 따라, 각 갈등상황마다 연구대상자에게 해당되는 단계를 결정하고, 연구대상자에게 해당하는 도덕 수준의 평균과 총합을 산출하였다. 이러한 평균치를 기준으로, 1.25 이하이면 제 1수준, 1.25와 1.75사이이면 제 1.5수준, 1.75와 2.25사이이면 제 2수준, 2.25와 2.75사이이면 제 2.5수준, 2.75 이상이면 제 3수준이 된다. 즉, 배려지향적 도덕성 수준은 연구대상자가 해당하는 단계들의 평균을, 배려지향적 도덕성 점수는 연구대상자가 해당하는 단계들의 총합을 의미한다.

「배려의 윤리 면접검사」는 아동학 전공교수 3인과 3명의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들이 그 내용을 검토해 주었다. 그리고 배려지향 도덕성을 분석한 후, 평정자간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들과 연구보조원의 평정자간 일치도와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Skoe와 Marcia(1991)가 보고한 배려지향 도덕성의 평정자간 일치도는 93% 95%였고, 평정자간 신뢰도는 Cohen's kappa=.86 .94였다. 본 연구에서의 평정자간 일치도는 73% 96%였고, 평정자간 신뢰도는 Cohen's kappa=.76 .92였다.

성역할 정체감

성역할 정체감을 알아보기 위하여, 정진경(1990)이 개발한 「한국 성역할 검사(KSRI: Korean Sex Role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한국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밝혀내어 이를 기초로 제작한 검사방법으로서, 남성성 척도 20문항, 여성성 척도 20문항, 그리고 긍정성 척도 20문항의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성성 문항은 여성에게보다는 남성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긍정적 문항들이고, 여성성 문항은 남성에게보다는 여성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긍정적 문항들이다. 중성적이고 자신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으로 표현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긍정성 문항은 어느 한 성에게 더 바람직한 특성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문항들이다. 여기서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는 논리적으로 상호독립적인 것으로, 계산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산출된다.

성역할 정체감 유형의 분류 방법으로는 중앙치 반분법(Median Split Procedure)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각 연구대상자의 남성성 척도와 여성성 척도의 점수를 산출한 후, 각각의 중앙치를 구하였다. 남

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의 중앙치를 기준으로, 두 점수가 모두 중앙치보다 높으면 양성적 정체감, 남성성 점수는 높고 여성성 점수가 낮으면 남성적 정체감, 여성성 점수는 높고 남성성 점수가 낮으면 여성적 정체감, 두 점수가 모두 중앙치보다 낮으면 미분화 정체감으로 분류하였다. 정진경(1990)이 보고한 성역할 정체감 척도의 신뢰도는 각 하위 영역별로 Cronbach's α =.75 .91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6 .84였다.

연구절차

예비조사는 2000년 12월 18일부터 2001년 1월 14일까지 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를 실시하는 데 무리가 없는지,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였다.

본 조사는 2001년 2월 19일부터 5월 25일까지 실시되었다. 특히, 배려지향적 도덕성은 면접자와 연구대상자 간의 일대일 면접을 통하여 실시되었으며, 각각의 면접은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되었다. 면접자가 측정도구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한 후, 성역할 정체감에 대한 문항을 측정하고, 배려지향적 도덕성에 관한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자는 피면접자에게 조금도 강요나 압력을 가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필요할 때마다 다양한 보충 질문들을 통하여 갈등상황과 판단 근거에 관한 심도있는 반응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였다. 면접자가 배려지향의 윤리 면접검사를 실시하며 소요된 시간은 개인당 15 30분 정도였다. 면접이 끝난 후에는 녹음한 내용을 기록에 옮기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가지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2명의 평정자가 각 반응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평

정자간의 분류가 일치하지 않는 기록 내용에 대해서는 토의를 통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자료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파악하고, 배려지향적 도덕성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및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중앙치 반분법(median-split method)에 의하여 성역할 정체감 유형을 네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배려지향적 도덕성의 평정자간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Cohen's kappa를, 성역할 정체감의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를 실시하였다. 성별 및 성역할 정체감과 배려지향적 도덕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F값이 유의한 경우 어떤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중다비교검증을 실시하였다. 여기에서 모든 검사의 유의수준은 .05로 정했다. 이상의 통계 처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10.0을 이용하였다.

표 1. 청소년의 배려지향적 도덕성 수준별 빈도

배려지향적의 도덕성 수준	성 별		전 체
	남	여	
제 1 수준	6(6.5)	2(2.2)	8(8.7)
제 1.5 수준	26(28.3)	23(25.0)	49(53.3)
제 2 수준	16(17.4)	17(18.5)	33(35.9)
제 2.5 수준	1(1.1)	1(1.1)	2(2.2)
제 3 수준	0(0.0)	0(0.0)	0(0.0)
전 체	49(53.3)	43(46.7)	92(100.0)

() 안의 수치는 백분율임

배려지향적 도덕성의 일반적 경향

청소년의 배려지향적 도덕성의 일반적 경향

청소년의 배려지향적 도덕성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배려지향적 도덕성의 각 수준에 따라 빈도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배려지향적 도덕성은 제 1.5 수준(53.3%)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제 2 수준(35.9%), 제 1 수준(8.7%), 제 2.5 수준(2.2%)순이며, 제 3 수준은 아예 나타나지 않았다.

30대 성인의 배려지향적 도덕성의 일반적 경향

30대 성인의 배려지향적 도덕성 수준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배려지향적 도덕성의 각 수준에 따라 빈도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배려지향적 도덕성은 제 2 수준(50.0%)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제 1.5 수준(37.5%), 제 2.5 수준(11.4%), 제 1 수준(1.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30대 성인의 배려지향적 도덕성 수준별 빈도

배려지향적의 도덕성 수준	성 별		전 체
	남	여	
제 1 수준	0(0.0)	1(1.1)	1(1.1)
제 1.5 수준	22(25.0)	11(12.5)	33(37.5)
제 2 수준	20(22.7)	24(27.3)	44(50.0)
제 2.5 수준	0(0.0)	10(11.4)	10(11.4)
제 3 수준	0(0.0)	0(0.0)	0(0)
전 체	42(47.7)	46(52.3)	88(100.0)

() 안의 수치는 백분율임

III. 연구 결과

50대 성인의 배려지향적 도덕성의 일반적 경향
50대 성인의 배려지향적 도덕성 수준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배려지향적 도덕성의

표 3. 50대 성인의 배려지향적 도덕성 수준별 빈도

배려지향적 도덕성 수준	성 별		전 체
	남	여	
제 1 수준	1(1.7)	0(0.0)	1(1.7)
제 1.5 수준	14(23.3)	3(5.0)	17(28.3)
제 2 수준	9(15.0)	33(55.0)	42(70.0)
제 2.5 수준	0(0.0)	0(0.0)	0(0.0)
제 3 수준	0(0.0)	0(0.0)	0(0.0)
전 체	24(40.0)	36(60.0)	60(100.0)

() 안의 수치는 백분율임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배려지향적 도덕성은 제 2 수준(70.0%)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제 1.5 수준(28.3%), 제 1 수준(1.7%) 순으로 나타났다.

성과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배려지향적 도덕성

성과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청소년의 배려지향적 도덕성

성과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청소년의 배려지향적 도덕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그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성과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청소년의 배려지향적 도덕성에 차이가 없었으며, 상호작용 효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

표 4. 성과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청소년의 배려지향적 도덕성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성별	2.07	1	2.07	1.12
성역할 정체감	1.16	3	.39	.21
성별×성역할 정체감	.71	3	.24	.13
오차	155.50	84	1.85	
전체	159.44	91		

$p > .05$

표 5. 성과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30대 성인의 배려지향적 도덕성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성별	18.47	1	18.47	11.60***
성역할 정체감	3.98	3	1.33	.83
성별×성역할 정체감	9.77	3	3.26	2.04
오차	127.38	80	1.59	
전체	159.59	87		

*** $p < .001$

각 수준에 따라 빈도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

성과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30대 성인의 배려지향적 도덕성

성과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30대 성인의 배려지향적 도덕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30대 성인의 배려지향적 도덕성은 성별($F=11.60, p<.001$)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하였으나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배려지향적 도덕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성과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50대 성인의 배려지향적 도덕성

성과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50대 성인의 배려지향적 도덕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50대 성인의 배려지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7.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50대 성인의 배려지향적 도덕성 사후 검증

	양성적	남성적	여성적	미분화
양성적				
남성적			*	
여성적		*		
미분화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성적 정체감과 여성적 정체감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적 정체감 집단보다 여성적 정체감 집단이 배려지향적 도덕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IV. 논의 및 결론

표 6. 성과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50대 성인의 배려지향적 도덕성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성별	16.77	1	16.77	28.46***
성역할 정체감	7.71	3	2.57	4.36**
성별×성역할 정체감	2.33	2	1.17	1.98
오차	31.22	53	.59	
전체	59.93	59		

** $p<.01$, *** $p<.001$

향적 도덕성은 성별($F=28.46, p<.001$)과 성역할 정체감($F=4.36, p<.01$)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하였으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배려지향적 도덕성이 높았다. 또한 어떠한 성역할 정체감 집단간에

배려지향적 도덕성의 일반적 경향

청소년의 배려지향적 도덕성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본 결과, 배려지향적 도덕성은 제 1.5 수준

(53.3%)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제 2 수준(35.9%), 제 1 수준(8.7%), 제 2.5 수준(2.2%)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배려지향적 도덕성을 살펴본 정미연(2000)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은 성인보다 교육이나 경험이 부족하여 아직 배려지향적 도덕성이 완전하게 발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을 대상으로 배려지향적 도덕성을 살펴본 Skoe와 Gooden(1993)의 연구에서도 제 1.5 수준이 가장 많았으며, 제 2.5 수준과 제 3 수준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집단주의적 가치관이 점차 사라지고, 오히려 개인주의적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우리 사회 청소년들의 모습을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다(설인자, 2000).

30대 성인들의 배려지향적 도덕성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배려지향적 도덕성 수준은 제 2 수준(50.0%)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제 1.5 수준(37.5%), 제 2.5 수준(11.4%), 제 1 수준(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년기를 대상으로 배려지향적 도덕성을 살펴본 바 있는 광경화와 정옥분(200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구적 가치관과 전통적 가치관이 병존하는 30대 성인들의 모습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효 의식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 속에서 현대적 교육을 받고, 서구적 가치관을 체득해 온 세대이기도 하다. 30대는 전통적 가치관과 서구적 가치관이 전환되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개인주의를 보다 강조하는 청소년과 전통적 가치관을 보다 중시하는 50대 사이에서 중간자적 위치에 놓여 있다.

50대 성인들의 배려지향적 도덕성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배려지향적 도덕성은 제 2 수

준(70.0%)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제 1.5 수준(28.3%), 제 1 수준(1.7%) 순으로 나타났다. 50대 성인들은 제 2 수준이 월등하게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각각의 세대가 서로 다르게 경험하는 사회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 급속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 50대는 전통적 가치관을 상당히 지니고 있으며, 평등한 부부 관계에 익숙하지 못하고,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 의식이 강한 세대이다. 즉, 가족주의적 가치관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으며, 노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을 다하는 세대이기 때문에(김명자, 1998), 50대 성인들은 다른 세대보다 제 2 수준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인하여 자기 희생적인 제 2 수준의 배려지향적 도덕성은 많았으나,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균형있게 조율하는 제 3 수준의 배려지향적 도덕성은 상대적으로 훨씬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기주의가 심화되고, 범죄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전통적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개인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서구 사회의 가치관을 융화시키는 과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동안 유교는 가부장적 인륜 질서를 강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개인의 인권과 자율성을 제한해 왔다. 더군다나 그 동안 우리 사회의 도덕률이 자기 자신에게 근거해 왔기 때문에 개인이 윤리적 실천의 주체로 확립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 온 것이 사실이다.

성과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배려지향적 도덕성

성과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청소년의 배려지향적 도덕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배려지향적 도덕성은 성과 성역할 정체감에 의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성에 따른 차이가 없는 본연구 결과는 청소년 세대가 평등한 가치관을 기반으로 개인능력과 성취에 따른 보편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기회, 수평적 인간관계를 교육받아, 남녀의 구분이 가장 많이 감소한 세대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성과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30대 성인의 배려지향적 도덕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배려지향적 도덕성은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배려지향적 도덕성이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30대 여성의 경우, 교육의 기회가 증대되면서 자율성과 정의, 평등, 인간 존중과 같은 서구적 가치관을 교육받은 세대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가치관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급속한 산업화로 인하여 서구적 가치관이 빠르게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가치관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은 현재의 삶에 주도적인 원리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를 가능하게 한 계기이면서 동시에 미래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과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50대 성인의 배려지향적 도덕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배려지향적 도덕성은 성과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배려지향적 도덕성이 높았으며, 여성적 정체감 집단이 남성적 정체감 집단보다 배려지향적 도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인 유교적 가치관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하여 남녀를 구분하여 양육하였다. 최근 들어 자녀 양육에 관한 아버지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으나, 아버지는 가족의 부양 책임자로서, 자녀 양육의 일부분만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전통적 가정교육

원리에 따르면, 아버지는 자녀에 대해 사랑을 해야 하지만 자녀들이 잘못하면 엄하게 다스리고, 어머니는 자녀들을 칭찬하고 잘못하여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자비로운 사랑을 해야 한다(정옥분 등, 1997). 이러한 전통적 가치관 및 양육행동 원리가 50대 성인의 배려지향적 도덕성에 있어 남녀 성차를 유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50대 성인은 성역할 규범이 보다 융통적인 젊은 세대보다 성역할 지향이 매우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적 정체감 집단이 남성적 정체감 집단보다 여성 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배려지향적 도덕성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청소년과 30대 성인, 50대 성인 간의 특성을 알 수 있다. 남녀간의 차이가 뚜렷한 50대 성인은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며, 평등한 부부 관계에 익숙하지 못하고,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 의식도 강한 세대이다(김명자, 1998). 한편, 30대 성인은 전통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나 서구적 가치관을 체득하면서 과도기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30대 성인은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청소년과 전통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50대 성인 사이에서 중간자적 위치에 놓여 있다. 한편, 청소년은 전통적 가치관보다는 서구적 가치관을 상당히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공동의 이익이나 집단보다 개인의 이익이나 가치관을 보다 중시하는 청소년의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설인자, 2000).

이상의 연구결과와 논의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전통적 가치관과 서구적 가치관이 혼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국외 연구들에 비해 배려지향적 도덕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보다는 전체의 안녕을 중시하고, 공동체적 유대감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배려하는 가치관을 점점 낮게 평가하는 반면, 독립적이며, 자유와 평등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점점 더 강조하고 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서구적 가치관과 전통적 가치관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서구적 가치관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전통적 가치관과 상충하는 상황에서 부작용만을 야기하였다. 예를 들어, 독립을 주장하며, 부모의 간섭을 불필요하게 인식하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하려 하기보다는 부모에 의존하려는 풍조에서도 이러한 부작용을 엿볼 수 있다. 둘째, 세대간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상대적으로 전통적 관점을 고수하며 10대 청소년 자녀를 둔 50대 성인들과 상대적으로 서구적 가치관에 단련되었으며, 50대 성인들을 부모로 둔 청소년 간의 단절과 괴리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고려해야만 한다. 따라서, 21세기를 대변할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가치관과 서구적 가치관, 세대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강완숙 (1998). 가족의 가치지향과 부모의 도덕성 및 훈육이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12), 11 24.
- 곽경화·정옥분 (2000).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1(2), 213 232.
- 권희정 (1995). 보살핌의 윤리와 기독교 도덕 교육.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자 (1998). 중년기 발달. 서울 : 교문사.
- 김선영 (1987).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양성적 성역할 정체감과 자아실현성 및 도덕성 발달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미 (1996). 부모의 성격 특성과 아동의 도덕성 발달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효과.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은 (1996). 캐롤 길리간의 배려 윤리의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은희 (1995). 여성의 도덕적 사유와 판단 : 남성의 도덕성 저 편에서. 현상과 인식, 19, 25 48.
- 박병춘 (1995). 도덕교육에서의 도덕적 성숙의 근거 연구: 길리간의 보살핌의 윤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윤명 (1997). 도덕성의 구성과 도덕 교육의 통합적 접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방은령 (1995). 도덕성 발달 과정에 관한 자기보고의 내용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설인자 (2000). N세대의 친사회도덕발달. N세대의 새로운 행동 패러다임: 청소년의 사회성, 도덕성을 중심으로. 발달심리학회 춘계 심포지움 자료집, 71 79.
- 유가호 (1995). 세계화를 위한 효 가치관 정립과 자녀양육 방향 모색. 한국과 미국의 자녀양육 방식과 비교문화적 고찰과 방향 모색, 한국아동학회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63 88.
- 이광규 (1975).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서울 : 일지

- 사.
- 이나현 (1997). 배려의 윤리적 관점에서 접근한 도덕 판단 지향성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창동 (1996). 농촌 국민학교 학생의 도덕적 판단력과 정직행위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연 (2000). 한국 고등학생의 배려지향적 도덕성과 정의지향적 도덕성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 (1998).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 : 학지사.
- 정옥분 (2000). 성인발달의 이해. 서울 : 학지사.
- 정옥분 · 김광웅 · 김동춘 · 유가호 · 윤종희 · 정현희 · 최경순 · 최영희 (1997). 전통 효 개념에서 본 부모역할 인식과 자녀양육 행동. 아동학회지, 18(1), 81 107.
- 정진경 (1990). 한국 성역할 검사(KSRI).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5(1), 82 92.
- 조남욱 · 이동희 · 안재순 · 송석준 · 박홍식 · 이기동 · 권정안 · 이상은 · 최영진 · 오석원 · 최일범 · 천인석 · 양재열 · 이문주 (1999). 현대인의 유교읽기. 서울 : 아세아문화사.
- 황병위 (1996).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유형과 아동의 도덕성 발달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정희 (1996). 돌봄의 도덕성 이론과 기독교 교육: Carol Gilligan의 도덕성 이론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 162.
- Deaux, K. (1976). The behavior of women and men. 이해성 역(1989). 남녀의 행동연구.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DeVitis, J. L., & Rich, J. M. (1994). The theories of moral development. 추병완 역(1999). 도덕 발달 이론. 서울 : 백의.
- Ford, M. R., & Lowery, C. R. (1986). Gender differences in moral reasoning: A comparison of the use of justice and care orient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4), 777 783.
- Friedman, W., Robinson, A., & Friedman, B. (1987). Sex differences in moral judgments? A test of Gilligan's theory.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1, 37 46.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illigan, C., & Attanucci, J. (1988). Two moral orientations : Gender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Merrill-Palmer Quarterly*, 34(3), 223 237.
- Kohlberg, L. (1981). The meaning and measurement of moral development. Massachusetts: Clark University Press.
- Kohlberg, L., & Candee, D. (1984). The relation of moral judgment to moral action. In Kohlberg, L., *The Psychology of Moral Development*, New York : Harper and Row Publishers.
- Lyons, N. P. (1983). Two perspectives: On self, relationships, and morality. *Harvard Educational Review*, 53(2), 125 145.
- Perry, D. G., & Bussey, K. (1984). Social development. 최상진 · 최순영 역 (1989). 인간의 사회적 발달. 서울 : 성원사.
- Pratt, M. W., Golding, G., Hunter, W. J., & Sampson, R. (1988). Sex differences in adult moral orient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56, 373 391.
- Söchting, I. (1996). Ethic of care and its relationship to attachment, object relations and social

The relationship of care-oriented morality to gender and sex-role identity among adolescents, young and middle-aged adults

Ock Boon Chung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Kyung-Hwa Kwag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of care-oriented morality to gender and sex role identity among adolescents, young and middle-aged adults. Care-oriented morality was measured by the Ethic of Care Interview(ECI) while sex role identity was assessed by the Korean Sex Role Inventory(KSRI) with a sample of 115 men and 125 women between 16 and 59 years of age. Care-oriented morality of most of the subjects was on Level 2. For the young adult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enders with females reporting higher care-oriented morality than males. For the middle-aged adult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sex role identity types, indicating that feminine individuals possessed higher care-oriented morality than masculine individual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ender groups was also found with females reporting higher care-oriented morality than males.

Keywords: care-oriented morality, sex role identity, adolescents, young and middle-aged adults